



장수소방서 한동규 서장, 공사현장 직접 점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19일 오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인 한국전력공사 신장수 S/S(변전소) 건설 현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고 용접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봄철 건조한 기후와 맞물릴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날 한동규 서장은 (유)육영건설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변 가연물 제거 상태 △공사장 내 위험물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사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강력히 권고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계농협, 고품질 사인머스켓 재배 위한 교육 실시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지난 19일 사인머스켓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인머스켓 재배 농가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교육은 사인머스켓의 안정적인 생산관리 및 품질 향상을 중점으로 두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대우 이재현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장수지역 토지에 알맞은 환경 조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장계농협 곽점용 조합장은 "사인머스켓은 철저한 품질 관리가 농가 소득을 좌우하는 작목"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통해 농가경쟁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순창경찰, 봄철 어르신 교통사고 주의 당부

순창경찰서(서장 이정호) 순화과출소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주의 기간 중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번 홍보는 마을 방송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에게 밝은색 옷 입기,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야간 외출 시 반사지 부착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특히, 봄철 농번기 및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 스스로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고추엔농산물가공판매 정기주주총회 개최

고추 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증대 추진 박차

임실군 출자기관인 임실고추엔농산물가공판매(주)는 지난 18일 행정과 농업, 읍면 대표주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승인, 2026년 사업계획 승인, 배당금 지급 승인, 정관 변경(안)승인, 사업준비금 적립 승인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재무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임실고추엔농산물가공판매(주)는 지난해 1,236톤의 홍고추를 수매하고, 매출 67억원과 당순이익 4억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판매에서 생산된 홍고추를 안정적으로 수매한 뒤, 건조·산별·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강화를 왔다. 임실군은 고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홍고추 출하 농가에 kg 당 200원에서 300원의 장려금 총 48억원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안정적인 수매 체계를 뒷받침해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공동육묘와 증자재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역시 고추 재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멸칭비닐, 지주대, 잡초매트, 키토산 등 농자재 지원사업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추가공센터의 건조기와 폐수처리장 정상화 등 시설 개선을 비롯해 선별라인 효율화와 가공 공정 고도화 및 임실고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포장재 지원 등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숙박시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남원소방서는 19일 남원 예천 한옥체험관을 방문해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옥 구조 특성상 목재 사용 및 건물 밀집 배치로 화재 시 연소 확대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화재위험요인 확인 △피난로 확보 및 비상구 개방 상태 점검 △초기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숙객 입실 시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최근 화재 사례 전파 등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경도인지장애 관리 강화 특강

김제시는 지난 18일 치매안심센터에서 '2026년 경도인지장애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치매 전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은 이재선(제일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이 맡아 △김제시 경도인지장애 진단 현황,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치매 간 임상적 구분, △경도인지저하자들을 위한 관리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향후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는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강을 계기로 대상자 분류의 정밀도를 높이고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제=곽태 기자

고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당부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당부했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차량 화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의 대비가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진동 및 고온 환경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자동차 전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창=김영희 기자

전북대병원, 암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성료

조기·정기 암 검진 중요성 강조

전북대학교병원이 암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암 예방의 날은 증가하는 암 발생률을 낮추고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지역암센터 주관으로 도민 참여형 홍보부스 운영과 내부 공모전 형태로 진행됐다. 병원 본관 1층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수검 인증 이벤트와 암 예방 생활 수칙 실천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안내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암 예방 및 암검진 삼행시 공모전'이 열려 예방 인식을 높이고 병



원 내 건강 메시지 확산에도 기여했다. 김명기 전북지역암센터 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이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수칙 실천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지역 암 관리 거점기관으로서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는 통합 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26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and their respective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